

# LG이노텍 (011070)

## 6월부터 아이폰의 시간



더 많은 리포트 보기

### 6/2 언론 보도: 아이폰16 패널 출하 계획 상향, 수요 예상 상회

—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아이폰16 OLED 패널 양산 승인을 최종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6/2, 전자신문). 올해 아이폰16 OLED 패널 생산량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33억대 (SDC: 9,000만대, LGD: 4,300만대)로 전망되어 시장 예상치 (1.2억대)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아이폰16 패널 출하 계획의 상향 조정은 하반기 출시될 신 모델에 대한 대기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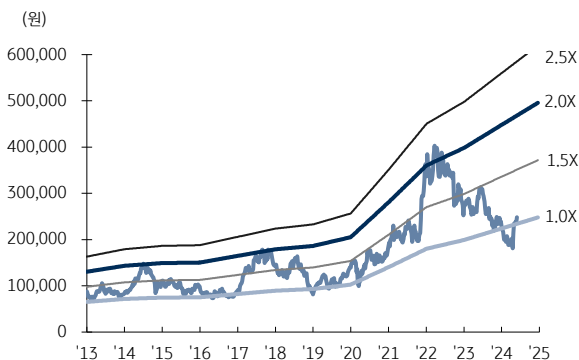
### 파급력 커질 아이폰16: 오픈AI 챗GPT, 구글 AI 제미니 동시 탑재

— 아이폰16은 차기 운영체제인 iOS18에 오픈AI 챗GPT 탑재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어 오픈AI의 AI 챗봇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구글 AI인 제미니도 동시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5/31, 디인포메이션). 만약 아이폰16이 오픈AI와 구글AI가 동시 탑재된다면 ① 챗GPT 기반의 음성비서 시리 (Siri)는 자체 소형언어모델 (SLM)을 통해 온디바이스 AI로 구현되고, ② 클라우드 기반의 검색 엔진은 구글 AI 모델인 제미니 (Gemini)를 통해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이폰 운영체제 (iOS18)는 전 세계 사용중인 20억대 아이폰을 통해 생성형 AI 학습 (training)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이 용이하고, 자체 개발된 데이터센터용 AI칩 (ACDC: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AI 소프트웨어가 실행)을 추론 (inference) 작업에 사용할 것으로 보여 아이폰 AI 생태계 조성의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

### 실적 추정치 상향 이어질 전망: 아이폰 매출비중 80%는 할증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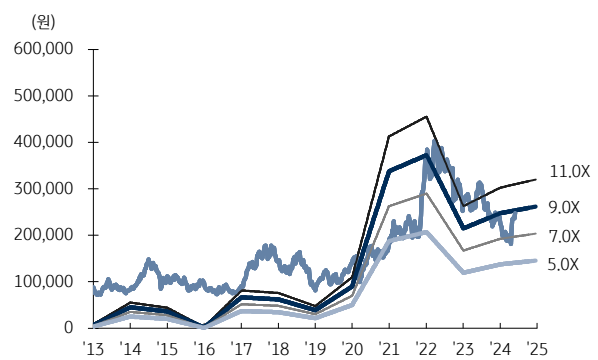
— 최근 중국의 애국소비에서 프리미엄 폰 선호 추세로 중국 아이폰 판매량은 3월과 4월에 전년대비 각각 +12%, +52% 증가되며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또한 중국 아이폰 공식 판매처인 징둥닷컴은 5월 31일부터 618 쇼핑시즌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어 하반기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중국 아이폰 재고는 판매량 증가로 건전화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한편 2024년 아이폰 판매량은 아이폰 교체 사이클 진입 영향으로 2.35억대 (+4.2% YoY)로 추정되어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판매량을 달성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중국 아이폰 판매 증가와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16 출하량 기대치 상향은 향후 LG이노텍 실적 추정치 상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LG이노텍의 높은 아이폰 매출비중 (80%)은 할인 요소가 아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주가의 업사이드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림 1. LG이노텍 2025E P/B 0.98배



자료: LG이노텍, KB증권 추정

그림 2. LG이노텍 2025E P/E 8.4배



자료: LG이노텍, KB증권 추정



## 투자자 고지 사항

---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LG이노텍]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삼성전자]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